

안암병원 2023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지난 11월 10일(금) 오전 10시, 안암병원 헤드오피스에서 2023년 안암병원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가 개최됐다. 산안위는 노사 전체 인사를 시작해 대표위원 인사 안건 논의로 진행됐으며 사전 산안위 소위원회를 통해 정리된 안전의 의결을 진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한승범 병원장, 노사 같은 마음이면 더 좋은 신뢰받는 병원 될 것.



노사 대표위원 인사에서 한승범 병원장은 “병원의 발전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다 들어있다. 병원이 유기적인 구조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작동하지 않아도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기계가 발달하면서 안전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었다. 방심하면 큰 사고가 나고 일하는 분들이 다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병원 집행부와 경영진에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노사가 같은 마음으로 일할 때 더욱 좋은 병원,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되지 않을까 한다. 협력해서 좋은 병원, 좋은 세상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송은옥 지부장 직무대행, 노사 소통하는 자리 계속 이어가자

노측 대표위원인 송은옥 지부장 직무대행은 “산안위가 산안법에 의해서 직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자리이다 보니 함께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누었으면 한다. 대표위원님이



직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하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또한 병원현장의 고충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 산안위에서 현안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산안위 통해 ▲환자 체위변경 부서 손목보호대 지급 ▲고객 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언/폭행 안내멘트 송출하기로

한편, 2/4분기 산안위를 통해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환자 체위변경으로 인해 터널증후군을 호소하고 수술까지



<터널증후군 방지 위한 보호대>

하는 등의 어려움이 지속 되어 예방을 위한 손목 보호대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보호자를 응대하는 직원들의 고충이었던 폭언·폭행 등에 대한 대책으로 안내멘트 송출을 꾸준히 논의해 내년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52시간 TFT에서 노사 합의된 부서 중 시설팀, 영상의학과와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설팀의 야간근무는 기본적인 시설관리,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계약직) 자리를 충원하지 못함으로 인해 계속 공석인 상태다. 지속적인 채용공고에도 충원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환자 안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영상의학과는 경우는 52시간으로 합의된 인력으로 신관의 CT, X-ray실까지 운영한다는 것이다. 52시간 TFT에서 신관 운영을 위한 인력은 08:30~17:30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원되었다는 미래전략팀의 확인을 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 17:30이후 신관 CT실에 간호사, 방사선사 2인만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조영제 부작용 등의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존대로 본관 CT실만 운영하며 신관 야간근무 인력투입 시기에 맞춰 응급상황에 따른 대처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17:30~22:00까지 신관 X-ray실에는 방사선사가 없다.

본관 X-ray실에서 검사하다 신관에 환자가 접수하면 본관에서 신관으로 뛰어가 검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환자는 방사

선사가 오기 전까지 혼자 있어야 한다.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다. 안암병원장의 인사말처럼 환자 및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고대안암병원이 되길 희망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 및 결과 >

안건		답변
지난 산안위 이행 점검 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내멘트 송출 건】 원외에서 원내로 전화 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언/폭행 금지]에 대한 안내 멘트를 전 부서에 적용하여 직원들의 안전보건에 힘쓰자.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전 부서, 모든 회선 적용할 계획이다.
	【안전·보건 집체교육 오프라인 변경 요구 건】 코로나로 인해 안전·보건 집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변경하고, 교육 결과와 계획안을 노동조합에 공유해 달라.	올해 하반기부터 오프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자. 주제는 노사 논의 후 직무스트레스로 정하였고 내년 1월에서 2월경에 시행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건】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을 11월 초 노사 간 자료공유 및 검토하고, 11월 중으로 3개 병원 노사 실무진간에 내용을 정리한 후 4/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자.	계획에 동의한다.
	【환경관리실 1인 근무 위험에 따른 금지 요청 건】 환경관리실 업무의 특성상 1인이 근무하는 경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직원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인 이상 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시설팀장에게 내용 확인하였고, 의료원에 정원 증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내년 본예산 검토중으로 의료원에 강력하게 얘기하겠다. LTE 무전기 설치 검토해 보겠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건	【도급인(병원)과 수급인(주차, 미화 등 용역 업체)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노동조합 참여 및 안전보건회의록 공유 건】 산업안전보건법 64조에 근거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회의록도 공유해 달라. 노조가 참여한다면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거나 애로사항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사합동 점검 및 회의 진행에 동의한다. 노사합동점검 및 회의로 진행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서 노사합동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하자. 노동조합 위원은 2인으로 하며 횟수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로 진행하자.
	【위험성 평가시 노동조합 참여 및 자료공유 건】 올해 5월부터 개정된 위험성평가에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매월 노사합동 순회 점검, 아차사고 분석, 제안제도 실시 방식의 평가가 생겼다.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자료도 공유해 달라.	상반기 1회씩 노사합동점검으로 진행하자. 위험성평가 자료 열람은 가능하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건	【환자 이송용 슬라이드 질 개선 건】 환자를 옮기는 경우 직원들의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이송용 슬라이드를 사용중이나 품질지 좋지 않아 질 개선이 필요하다.	노사 함께 현장조사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노후된 슬라이드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응급실 간호사 간편화 지급의 건】 응급실 간호사들의 간호화가 현재 단일 품목으로 지급중에 있어 착용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질 개선이 필요하다. 간편화를 추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안전과 기능을 겸비한 간편화로 찾아보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